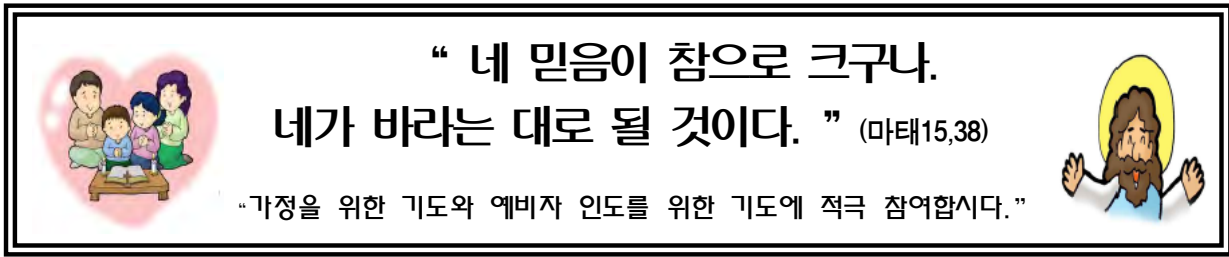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7월 기도지향

- 김태중(예레미야), 김시연(엘리사벳) 김지민(글라라), 김민정(리디아) 가정
- 정수한(베드로), 김주연(세실리아) 정예찬(미카엘), 정예진(한나) 가정

오늘은 "연중 제16주일" 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고 말씀하십니다. '외딴곳'이란 사람들과 일을 잠시 잊고 떠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밀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쳤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피곤한 일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훌훌 털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일과 사람에게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충전뿐만 아니라 휴식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휴식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찾게 해 줍니다. 철학자 파스칼도 인간의 불행은 단 한 가지, 조용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외딴 곳'은 바로 외적인 고요와 침잠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결국 '자기 자신과 만나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존재목적과 가치를 상실하고 방황한다면, 아무리 인기가 좋고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오늘 "평협회의" 가 있습니다.

오늘 미사 후에 평협회의가 있습니다. 평협 분과장님들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7월 22일(주일) 점심식사 후

다음주일에 "구역장 모임" 이 있습니다.

다음주일 중심미사 후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7월 29일(주일) 점심식사 후

거룩한 독서모임

매주 화요일 미사(저녁 8시)후 성당에서 거룩한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합니다.
- 화요일 : 저녁 8시 30분부터

함께 나눕시다!! - "그리스도인의 휴가"

그리스도인의 휴가는 세상살이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심신의 안정과 평화를 되찾는 휴가입니다. 긴장과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다시 새 출발 할 수 있는 원기를 회복하는 휴가입니다. 최종적으로 언젠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의 한 끄트머리를 조금이나마 체험해보는 휴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휴가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왕복 비행기 티켓이나 갖은 여행준비물이 아니라 기도와 묵상을 통한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휴가는 외적인 휴가만을 통해서 절대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휴가는 올바른 영성의 길로 들어서야만 얻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하느님 보호의 손길 안에 들어가는 것, 하느님 옆에 안식처를 마련 하는 것, 하느님 안에서 숨 쉬는 것이 가장 휴식다운 휴식입니다.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예비신자들을 위한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에 입문을 원하시는 분이나, 기초교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우님들께서는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일시 : 매 주일 아침 10시
- 교리장소 : 성당지하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마 침
39	217	182, 166	426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이번주일	문석찬(요 섹)	김태중(예레미야)
	문호진(안토니오)	문예나(요 안 나)
다음주일	정준구(파비아노)	정수한(베 드 로)
	정병훈(보니파니오)	정예찬(미 카 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이번주일	김명은(안 젤 라)	정수한(베 드 로)
	최은미(아 네 스)	김주연(세실리아)
다음주일	최은미(아 네 스)	박희영(가타리나)
	박혜정(가타리나)	김준영(요 섹)

애찬 봉사자

이번주일	지은경 리브가, 이대숙 사비나, 박정옥 수산나
다음주일	김주연 세실리아, 김수연 율리안나, 안현숙 크리스티나

헌금 봉사자

이번주일	신혜경(마 리 아)	박희영(가타리나)
다음주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 드 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두셔서 감사합니다!!!

<7월 8일>	<7월 15일>
- 미사참례 : 70명	- 미사참례 : 59명
- 주일헌금 : \$290	- 주일헌금 : \$390
- 교 무 금 : \$220	- 교 무 금 : \$330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 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박진성 프란치스코
C: 913.484.3555
saecula1026@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군중을 보시고 그들을 가엾이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목자를 떠난 양과 같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청하며 마음을 모아 미사를 봉헌합니다.

성화해설

왜고개 서울대교구,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소재.

현재 군중교구 주교좌인 국군 중앙 성당이 자리하고 있는 왜고개는 한자로 와현(瓦峴)·와서현(瓦署峴)이라 불리던 곳으로 예부터 기와와 벽돌을 구워 공급하는 와서가 있었던 데서 유래한다. 왜고개는 병인박해 때 세남터에서 순교한 7명의 순교자가 33년간, 서소문 밖에서 순교한 2명의 순교자가 43년간 매장되었던 유서 깊은 곳이다. 또한 1846년 9월 15일 순교한 성 김대건 신부의 시신이 잠시 모셔졌다가 박해가 진정된 후 미리내로 이장된 역사도 지니고 있다.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예레 23,1-6 <나는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들여 그들을 돌보아 줄 목자들을 세워 주리라.>



주 님 께 서 는 나 의 목 - 자 아 쉬 울 것 없 노 라.

○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아란 풀밭에 이 몸 누여 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 주시니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돌아라. ◎

○ 주님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것 없나이다. ◎

○ 당신의 막대와 그 지팡이에 시름은 가시어서 든든하외다 제 왼수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향기름 이 머리에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 하외다. ◎

○ 주님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한평생 은총과 복이 이 몸을 따르리니 오래오래 주님 궁에서 사오리-다. ◎

제 2 독서 : 에페 2,13-18 <유대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 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 음 : 마르 6,30-34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다.>

말씀의 이삭

“사랑에는 방학이 없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면서 속으로는 이제 조금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휴식의 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또 쉼의 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준비로서 효과가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나긴 전도여행 때문에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쉼의 기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이 계획은, 눈치 빠르게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반대편 호숫가에 도달한 여러 군중들 때문에 변경되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 예수님께서서는 군중들을 측은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마음에 대해 목자없는 양들과도 같은 그들을 측은히 여겨시어, 목자로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계속 이어지는 성경 대목에서는 저녁이 되어 군중이 배고파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많게 하는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안겨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쉬어야 할 때, 또 휴식을 가져야 할 때가 분명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삶에서 결코 ‘이제는 휴식이다.’는 말로 중단하거나 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모든 것에 때로는 휴식과 방학을 가져야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적인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방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방학이나 휴식, 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휴식하는 시간을 갖고 싶으셨지만, 군중들을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 군중들을 참 사랑을 베풀기 위해 휴식을 가질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이웃, 또는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이 정도로 했으면, 나를 내 할 바는 다했다.**’고 자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할 바를 다 했다고 자신하는 것은, 결국 내 의무를 다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는 일을 조금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 주셨듯이 사랑의 일에서 만큼은 ‘**내 의무를 다 했으니, 쉬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사랑, 중단없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받지 않는다면 사랑은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랑할 힘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방학없이 사랑을 실천하고, 쉼없이 말씀을 전하는 성실한 하느님이 사람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 박진성 프란치스코 신부 | 캔사스 한인 성당 주임

함께 나누어요

잘 늙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늙음을 서러워하고, 가는 세월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늙어지면 우선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그러면 자연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체기능이 점점 약해져서 일하는 것이 버거워지고, 젊었을 때처럼 마음대로 먹고 즐길 기운이 쇠퇴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나이 먹고 늙음으로 인해 가정이나 사회에서 역할이 없어지면서 자칫 소외감을 느끼거나 고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먹음, 그리고 늙음!
우리는 나이 먹음과 늙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깨닫고, 느끼기 힘이 들지만 나이 먹음이나 늙음은 힘든 일을 벗어놓고 조용히 쉬면서 인생을 관조(觀照)하며 자신을 정리하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창 젊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면 늙음과 나이 먹음은 지난날의 잘못을 찾아내고 그것을 뉘우리며 지금까지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용서 청할 것은 용서 청하고, 그 동안 못 다한 좋은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서운했던 이웃이 생각난다면, 그들을 찾아보고 화해를 해야 합니다. 자손들에게도 골고루 애정을 나누어주지 못했다면 부족하였던 정을 나누고, 미처 가르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또 젊었을 때 각박한 생존경쟁으로 쉼없는 시간 속에서 주위를 돌아볼 시각이 없었다면, 나이 먹음과 늙음이 먼저 떠나간 친구들의 안식을 빌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나이를 먹은 만큼,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아온 만큼, 따뜻하고 푸근하게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창하지는 않아도 젊은이들과 같이 대화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 속에 번득이는 총기와 젊음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를 아는 누군가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할 때, 길을 가다가도 어린 꼬마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달려와 안길 수 있는, 그들과 해맑은 웃음을 같이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이를 먹고 늙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부들의 신앙

디다케

초대교회 신자들의 윤리생활과 전례와 제반 규정에 관한 중요한 문헌이 디다케이다. 디다케란 희랍어단어는 “가르침”이란 뜻이다. 이 문헌의 원래 이름은 [열두 사도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주님의 가르침]인데 줄여서 [열두사도의 가르침]이라고도 부르고, 더 줄여서 그냥 디다케[가르침]라고 부른다. 이 문헌이 저술된 시기는 대략 100-150년 사이로 본다. 16장으로 되어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1-6장)에서는 윤리적인 가르침을 두 가지 길, 즉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로 서술하고 있으며, 후반부(7-15장)에서는 교회의 전례와 제반 규범을 규정하고, 끝으로(16장)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다.

디다케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요하게 여겨져서 마치 신약성경의 정전처럼 읽혀져 왔다. 아타나시우스 성인에 의하면 디다케의 전례 기도문이 교회안에 널리 사용되었고, 또 예비자들을 교육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디다케는 2세기 초엽까지의 교회 공동체의 생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후대 동방 서방 교회의 모든 전례 및 윤리규정들에 원형적인 규범이 되었다. 이 문헌은 [교부문헌총서] 제7권에 우리 말로 번역되어 있다.

두 가지 윤리적 가르침은 두 가지 길로 묘사된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의 내용은 후대 영성생활과 수덕생활에 관한 저서들의 기초가 되었다. 이 주제는 신명기 11, 26-31과 시편 1,1-6, 마태 7,13-14에 나오는 것이다. 두가지 길에 이어서 세례 의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윤리적 가르침은 예비자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지켜야 할 전제 조건으로서 또는 세례 후에 새 신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두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두 길의 차이가 큼니다. 생명의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당신을 만드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당신 이웃을 당신처럼 사랑하시오. 또 당신에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마시오”(디다케 1,1-2).

“죽음의 길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길은 악하고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인, 간음, 탐욕, 음행, 도둑질, 우상숭배, 마술, 교만, 인색, 수다, 음담패설, 질투, 무례, 교만, 자만, 현명치 못함 등입니다.”(5장). 그리고 여러 가지 악행들이 열거되는데, 금령들 중에 오늘의 현실과 관련하여 우리의 주의를 끄는 대목은 “태아를 낙태하지 말고, 영아를 살해하지 마시오”이다. “낙태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초대 교부시대의 문헌인 [바르나바 서간]에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교회의 일관된 준엄한 가르침이었다.